

# 조선후기 여성의 두 가지 욕망과 탄식\*

- <노처녀가>와 <여자자탄가>를 중심으로 -

최상은\*\*

|| 차례 ||

- I. 머리말
- II. 본성적 욕망의 좌절과 보편적 삶의 동경, <노처녀가>
- III. 보편적 이념의 속박과 정서적 일탈, <여자자탄가>
- IV. 마무리

## 【       】

이 글에서는 <노처녀가>와 <여자자탄가>를 중심으로 18세기 이후 여성가사에 나타난 여성 정서로서의 ‘욕망’과 ‘탄식’의 의미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했다.

<노처녀가>와 <여자자탄가>는 작품화자가 혼인하지 못한 노처녀와 혼인한 부인이라는 점에서 상반되지만, 두 작품 공히 타고난 본성적 욕망과 보편적 삶의 이념성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탄식이라는 점에서는 동질적이다. <노처녀가1>은 타고난 본성적 욕망인 혼인이 좌절된 원망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을 노래했다. 그런데 <노처녀가2>와 여타 <노처녀가>들은 그런 원망과 함께 혼인 후 당시 여성들이 이루고자 했던 보편적 삶을 성취해 가는 과정까지 내용이 확장되어 있다. <노처녀가1>은 응어리진 속마음을 털어놓고 동료들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정서를 순화하고, 다른 <노처녀가>들은 서사적 전개를 통해 가정을 이루려는 노처녀의 꿈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까지를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자자탄가>는 혼인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 보편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의 원분을 토로한 작품이다. <여자자탄가>의 화자를 힘들게 한 것은 당시 여성들의 보편적 삶이

\* 본 연구는 2017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 교수

다. 혼인 못한 노처녀가 동경했던 보편적 삶이 혼인한 여성에게는 삶의 속박이 된 것이다. 동경의 대상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 현실은 또 다른 속박이 되고, 사람은 다시 그 현실에서 일탈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고 새로운 세계를 동경하게 된다. 즉, 본성적 욕망과 보편적 삶, 현실과 동경의 세계 사이에서의 갈등을 탄식한 것이 <노처녀가>와 <여자자탄가>이다. 따라서 두 작품은 당시 여성들에게 가장 심각했던 갈등의 두 양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작품이 당시의 다양한 문학 장르로 향유되고, 여성 문학의 성행, 과감한 표현들, 등장인물의 다양화 등 문학사적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를 인정해야 하지만, 이들 작품에서 근대적식을 찾기는 무리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노처녀가>, <여자자탄가>, 욕망, 탄식, 보편적 삶, 원분, 이념, 속박, 일탈

## I. 머리말

<노처녀가>와 <여자자탄가>는 조선후기 여성 탄식가사로서 널리 불렸던 작품이다. 두 작품은 이본이나 유사 제목의 작품이 많아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연구업적도 축적되어 있다. 탄식가라는 점에서는 동질성이 있지만, 두 작품은 서로 상반된 상황에서 창작된 작품이다. <노처녀가>는 노처녀가 혼인하지 못한 한을, <여자자탄가>는 혼인한 여성의 한을 노래한 작품이다. 상반된 상황에서 지은 두 작품에 대한 검토는 당시 여성들의 정서나 의식세계의 두 축을 선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전 문학에 나타나지 않던 노처녀의 극심한 불만과 원망을 담은 <노처녀가>의 등장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노처녀가>에서 탄식의 목소리로 표현된 노처녀의 정서를 가부장적 남성 중심 사회의 유교 윤리에 대한 반발로 해석하거나 나아가 근대적 지향으로까지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런 관점에서의 논의는 최원식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많은 연구자들

로부터 공감을 얻었다.<sup>1)</sup> 그렇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sup>2)</sup>

이들 논의는 대부분 <노처녀가>의 서사화 과정에 주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노처녀가1><sup>3)</sup>을 중심으로 하고 <노처녀가2><sup>4)</sup> 등 다른 <노처녀가><sup>5)</sup>를 보조 자료로 하여 작품세계를 공시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1) 최원식, 『가사의 소설화 경향과 봉건주의의 해체』, 『창작과 비평』 통권 46호, 창작과 비평사, 1977 겨울, pp.231-255. 최원식은 이 논문에서 <노처녀가1>, <노처녀가2>, <꼭둑각시전> 등을 중심으로 가사의 소설화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노처녀가>는 봉건주의 해체 과정 속에서 성숙한 반봉건적 계기의 반영이라고 그 의의를 부여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근대문학으로 발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했다. 다소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이런 맥락에서 논의한 대표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서영숙, 『서사적 여성가사의 연구』, 『어문연구』 제22집, 어문연구학회, 1991, pp.185-198.

서인석, 『가사와 소설의 갈래교섭에 대한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5, p.66.

김용찬, 『『삼설기』 소재 <노처녀가>의 내용 및 구조에 대한 검토』, 정재호 편,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6, pp.419-435.

최규슈, 『<삼설기본 노처녀가>의 갈등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5집, 한국시가학회, 1999, p.421.

2) 최진형, 『‘가사의 소설화’ 재론』, 『성균어문연구』,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1997, pp.213-244와 성무경, 『‘노처녀’ 담론의 형성과 문학양식들의 반향』, 『한국시가연구』 제15집, 한국시가학회, 2004, p.182 참조 두 논문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최진형은 가사와 소설은 서사성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를 기초서사와 양식서사로 분별하여 인식할 경우 명확한 양식적 차별성을 보이는데 <노처녀가>를 중심으로 가사의 서사화를 논의한 기존의 ‘가사의 소설화론’은 당위의 차원에서 거론되었을 뿐 실제로는 치밀하게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했다. 성무경은 <노처녀가2>가 <노처녀가1>에 선행하는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노처녀가>의 회화적 표현들은 노처녀에게 연민과 동정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회화적 과장이지, ‘이념적 진보성’이나 ‘사회문제를 반영하는 작가 의식’을 전달하려는 ‘진정성이 요구되는 작품’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3) 정문연, 『규방가사』 I, 정문연 고전자료편찬실, 1979, pp.125-127. 이 작품은 <잡가본 노처녀가>로 불리기도 한다.

4) 김동욱 편, 『고소설판각본전집1』,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73, pp.24-27. 이 작품은 <삼설기본 노처녀가>로 불리기도 한다.

5) <노처자전이라>, <꼭둑각시전>, <노처자수절가> 등이 있다.

다음으로, 작품화자나 작가의식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노처녀가1>은 남성 작가가 여성인 척 말하기 방식으로 노처녀를 문학적 소재로 끌어들이기는 했지만 노처녀에 관한 내면적 이해 없이 한 차례 ‘노처녀 때리기’를 행한 작품으로서의 노처녀에 대한 몰이해의 출발을 의미한다는 견해<sup>6)</sup>, ‘남성작가에 의한 노처녀 때리기’와는 정반대로 ‘노처녀’를 통한 자신의 삶의 성찰과 자기 연민에의 확인으로 파악한 견해도 있다.<sup>7)</sup>

보다 근원적인 논의로서, <노처녀가>는 인간의 본성적 욕구를 중시함으로써 기존 관념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견해,<sup>8)</sup> 노처녀 문제가 특수한 노처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욕망과 관련된 것이며, 신분 제라는 사회적 질곡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적인 형태로 이야기함으로써 노처녀 문제를 공적 담론의 차원에서 문제 삼았다는 태도를 밝힌 작품이라는 견해.<sup>9)</sup> <노처녀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처녀의 자기 욕망 표출을 ‘비정상 범주 속 노처녀들의 욕망 표출’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보여준 다양한 문학적 반항 및 표출 속에서 ‘여성’의 욕망 발산으로, 나아가 중세 시대 내내 억압되었던 한 ‘인간’의 욕망 발산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sup>10)</sup> 등도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노처녀가>에 대한 기존 논의는 매우 다양하게 심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글의 논지와 관련하여 기존 논의들을 종합

6) 고순희, 「<노처녀가1> 연구」, 『한국시가연구』 제14집, 한국시가학회, 2003, p.186.

7) 하운섭, 「시적 체험의 다양성과 <노처녀가(1)>」, 『국어문학』 제44집, 국어문학회, 2008, p.299.

8) 김문기, 『서민가사연구』, 형설출판사, 1983, p.88.

9) 박일용, 「<노처녀가(1)>의 담론 형태와 그 시학적 의미」, 김병국 외편,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 월인, 2006, p.78.

10) 박상영, 「<노처녀가> 이보의 담론 특성과 그 원인으로서의 ‘시선」, 『한민족어문학』 제73집, 한민족어문학회, 2016, pp.426-427.

해 보면, <노처녀가>의 주제의식이 지닌 근대성과 한계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즉, 가부장적 기존 관념에 대한 비판으로서 진전된 의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많은 논의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여 주었지만, 근대적 의의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노처녀가>가 인간의 본성적 욕구를 중시했다는 김문기와 인간의 보편적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박일용, 그리고 ‘여성’의 욕망 발산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한 박상영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작품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논의방법에 있어서 그 동안 작품론적 차원의 이해가 부족했다는 지적들<sup>11)</sup>을 참고로 하여 작품의 전개와 화자의 갈등을 자세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음에 언급할 <여자자탄가>와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문기와 박일용, 그리고 박상영의 결론과는 또 다른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규방가사 <여자자탄가><sup>12)</sup>에 대한 기존논의를 검토하고 논의 방향을 제시해 본다. <노처녀가>에 비해 <여자자탄가>는 기존논의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규방가사의 경우, 개별 작품 연구보다 계녀가, 풍류가, 자탄가 등 유형 연구에 치우친 감이 있다. 최규수는 이러한 연구 경향을 비판하면서 신변탄식류 중 <여자자탄가>로 묶을 수 있는 작품의 자료적 실상을 검토하여 심화된 논의를 펼칠 지점을 찾겠다<sup>13)</sup>고 했다. 그런 관점에서 <여자자탄가> 자료를 다시 기본형, 한탄강화형, 극복시도형으로 분류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개별 작품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개별 작품 분석보다는 논의 방향제시나 하위 유형으로의 분류 작업에 무게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재수<sup>14)</sup>는 일찍이 개별 작품 <여자자탄

11) 하윤섭, 박상영의 앞의 글 참조.

12) 임기중,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12, 아세아문화사, 2005, pp.321-325.

13) 최규수, 「<여자자탄가>의 자료적 실상과 특징적 면모」, 『어문연구』 제43권, 어문연구학회, 2015, pp.286-287.

가>에 대하여 논의했는데, 이 논문 역시 <여자자탄가>의 이본 연구로서 이본 간 구성, 내용, 수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언급하는 데 주력한 결과 개별 작품에 대한 정밀한 분석에는 이르지 못했다.

백순철은 규방가사에 나타나는 의식의 혼돈과 감정의 착종에 착안, 그 원인과 의미를 밝혔고,<sup>15)</sup> 신경숙은 백순철의 견해를 받아들여 탄식이 각 편이 겹겹이 드러내고자 한 복합적인 소리들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sup>16)</sup> 양태순은 여성성을 중심으로 규방가사에 나타나는 ‘한탄’에 대하여 논의했다. ‘한탄’이 여러 유형의 규방가사 전반에 나타나는 정서임을 전제로 하여 그 존재양상을 보편성, 전형성, 확장성, 비극성으로 구분, <노처녀가1>과 <노처녀가2>를 중심으로 논의했다.<sup>17)</sup> 각각의 작품에 대하여 항목별로 해당되는 내용을 일일이 인용하여 자세하게 논의했지만, 한 작품 전체의 문맥을 일관되게 서술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노처녀가>와 <여자자탄가>

14) 이재수, 『여자자탄가 연구』, 『동양문화연구』 제2집, 경북대 동양문화연구소, 1975, pp.17-62 참조.

15) 백순철,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사회적 성격』, 고려대 박사논문, 2000, pp.71-74에서 규방가사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분열의식과 혼돈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한 작품안에 비판과 선망, 거부와 동경의 감정이 중층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새로운 질서를 꿈꾸지만 너무나 억압적인 현실 앞에서 의식의 혼돈과 감정의 착종을 겪는 여성의 고난스런 삶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16) 신경숙, 『규방가사, 그 탄식 시편을 읽는 방법』, 『국제어문』 제25집, 국제어문학회, 2002, p.91 참조. 신경숙은 백순철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탄식이 각 편들은 ‘다양한 혼돈 사이’, ‘착종된 의미들’, ‘중첩된 감정들’을 드러내 주는 복합적인 소리로서 각편은 유형별로 ‘엇비슷한’ 것이 아니라 ‘겹겹이’ 드러내야 할 혼돈들이 자리잡고 있는 일상의 현장이므로 고난이 인간을 어떻게 이끄는지의 생생한 증언들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개별작품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는 현상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했다.

17) 양태순, 『규방가사 여성성으로서의 ‘한탄’에 대하여』, 김병국 외 편,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 월인, 2006, pp.163-221.

를 해석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점을 달리 하여 작품을 해석해 볼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몇몇 기존 연구자들도 지적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는 유형 연구에 치중한 나머지 개별 작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노처녀가>과 <여자자탄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작품 분석의 관점은 먼저 인간의 본성적 욕망과 당대인들의 보편적인 삶과의 관계이다.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작품 외적 사회환경이나 문학사적 맥락의 관점에서 작품 해석을 함으로 인하여 당시의 유교 관념이나 남성 중심적 가부장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 나아가 근대 지향적 의식으로까지의 부여를 했다. 이 글은 과연 그런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 II. 본성적 욕망의 좌절과 보편적 삶의 동경, <노처녀가>

<노처녀가>는 20편이 넘는 작품이 여러 잡가집에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규방가사로도 불렸고, 소설집에도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세기로부터 20세기 초까지 광범위하게 노래 불리고 읽혔던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노처녀가>에 대한 당대인들의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어 있었음을 방증해 주는 것이다.<sup>18)</sup>

이렇게 <노처녀가>가 당대인들에게 광범위하게 회자되고 공감을 얻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기존관념이나 남성 중심적 가부장 사회에 대한 도전에 공감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재미삼아 우스갯거리 노래에 흥미를 느껴서 인가?

18) 성무경, 앞의 글, pp.170-172에 <노처녀가> 수록 문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었다.

우선 <노처녀가1>을 꼼꼼하게 살펴보자.

인간세상 사람들아 이내말씀 들어보소 / 인간만물 생긴후에 금수초목 짝이  
있다 / 인간에 생긴남자 부귀자손 갖건마는 / 이내팔자 험구즐손 날가튼이  
또잇든가 / 백년을 다사러야 삼만육천 날이로다 / 혼자살면 천년살며 정녀되  
면 만년살가 / 답답한 우리부모 가난한 줍양반이 / 양반인체 도를차려 처사가  
불민하여 / 괴망을 일사으며 다만 한 땀 늘거간다 / 적막한 빈방안에 적료하게  
홀로안자 / 전전반칙 잠못이뤄 혼자사설 드러보소

아연듯 춘절되니 초목군생 다즐기네 / 두견화 만방하고 잔디닐 속넙난다  
/ 자근바자 쟁쟁하고 종달새 도루뜬다 / 춘풍야월 세우시에 독수공방 어이할  
고 / 원수의 아희들아 그런 말 하지마라 / 앞집에는 신랑오고 뒷집에는 신부가  
네 / 내귀게 덧는바는 늦길일도 하도만타 / 녹양방초 저믄날에 해는어이 수이  
가노 / 초로가튼 우리인생 표연히 늘거나니 / 머리채를 옆에끼고 다만한숨  
뿐이로다 / 간밤에 짝이없고 긴날에 벗이업다 / 아마도 모진목숨 죽지못해  
원수로다

<노처녀가1>의 서두와 결말이다. 화자가 털어놓은 속마음의 첫 번째는 금수초목도 짝이 있는데 자신은 적막한 빈 방안에 홀로 앉아 잠 못 이루고 있는 사연을 들어보라는 것이다. 결말에서도 봄이 돌아와 초목군생은 다즐기는데 자신은 독수공방, 홀로 늙어가고 있는 처지라 죽지 못해 원수라고 하여 서두와 짝을 이루고 있다. 금수초목·초목군생, 즉 세상만물이 다 짝이 있기 마련인데 하물며 인간인 자신만 짝이 없는 현실에 대한 탄식이다. 금수초목과 초목군생을 들먹인 것은 자연의 섭리나 타고난 본성적 욕망을 얘기하기 위함이다. 금수가 성장하여 짝을 찾고 새끼를 낳아 무리를 이루고, 초목이 성장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인간도 짝을 만나 혼인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본성적 욕망이다.<sup>19)</sup> 인간은 타고난 본성적 욕

망에서 그치지 않고 당시 사회의 이념에 바탕을 둔 보편적 삶을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욕망도 가지고 있다. <노처녀가1>의 서두와 결말은 타고난 본성적 욕망조차 좌절된 당대 여성들의 탄식을 노래한 것이다.

홀로 적막한 방 안에서 전전반측하는 화자는 짝이 있는 금수초목, 봄을 즐기는 초목군생, 혼인하는 이웃 신랑신부에 대하여 극심한 대립감정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화자를 노처녀로 방치한 부모에 대해서는 적대적이라고 할 정도로 극단적이다. “답답한 우리부모 가난한 줌양반이 / 양반인체 도를차려 처사가 불민하여 / 괴망을 일사으며~”라는 표현은 부모에 대한 원망의 한계를 넘어서는 욕설로서 패륜적 발언<sup>20</sup>이라 할 정도이다. 부모에 대한 이러한 발언은 본사에서도 시종일관 지속된다. 그러면 부모에 대한 화자의 이런 태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본사의 내용을 검토해 보자. 본사의 내용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내용을 요약하고 단락별 첫 대목을 인용한다.

① 나이 사십 노처녀의 답답함

노망한 우리부모 날길러 무엇하리 / 죽도록 날길러서 자바쓸가 구어쓸가

② 고대하는 중매 소식은 없고 영똥한 소식만 듣는 서러움

부친하나 반편이요 모친하나 숙맥불변 / 날이새면 내일이요 세가되면 내년

19) 『朝鮮王朝實錄』英祖 33년 1월 1일 <혼기를 농친 사대부, 서인들을 돌보라고 하고 하다>의 왕명에도 이와 유사한 말이 나온다. “만물은 봄을 맞이하면 모두 열매를 맺는 이치가 있는데, 아! 백성 가운데 혼인하는 시기를 농친 자들은 초목(草木)만도 못하니, 어떻게 왕도 정치를 한다고 하겠는가?(萬品逢春, 咸有結實之理, 而嗟哉! 元元之愆期, 不若草木, 豈王政之所爲?)” 『조선왕조실록』에 이즈음 노처녀에 대한 상소와 하교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 걸로 보아 사회문제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 고순희, 앞의 글, p.179. 필자는, 작품 화자가 노처녀가 아니라 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했다고 보았다. 이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

이라 / 혼인사설전폐하고 가난사설 뿐이로다

③ 사족가문만 가리다 아깝게 세월만 흘러보내는 답답함

그동안에 무정세월 시집가서 플러머는 / 친구업고 혈족업서 위로하리 전혀  
업고 / 우리부모 무정하여 내생각 전혀업다

단락①에는 서두의 정서를 이었다. 태초로부터 인간은 배필을 만나 혼인하는 것, 남녀자손 시집장가 가는 것이 떳떳한 일이지만 나이 사십 처녀로 있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런 정서를 더욱 부추기는 것은 팔자 좋아 이십 전에 시집가는 처녀와 적막한 자신의 상반된 처지이다. 앞서 언급한 바, 본성적 욕망을 좌절당한 화자의 탄식은 민망할 정도로 극단적이다. 화자를 이렇게 만든 부모를 노망했다고 하고, 죽도록 길러서 잡아먹을 건가 구워 먹을 건가라고 극언을 했다.

단락②에서는 기다리는 중매쟁이는 안 오고 환자재촉, 외삼촌부음 같은 반갑지 않은 소식에 시집간 앞집 아기의 출산소식, 동편집 딸 시집간다는 소식이 겹쳐지자 간장이 녹아내린다. 다른 소식보다도 이웃의 출산소식과 시집간다는 소식이 화자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됐다. 화자는 오로지 시집에만 관심이 있다. 부모에게는 환자재촉이나 외삼촌 부음이 눈앞에 닥친 중차대한 일이겠지만 화자에게는 청혼서가 오는 것만큼 큰일은 없는 것이다. 부모의 처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를 반편, 속맥불변이라고 하면서 혼인사설 전폐하고 가난사설뿐이라고 몰아붙였다.

단락③에서는 아리따운 딸의 자태를 아깝게 썩히지 말고 김동이든 이동이든 부귀빈천 생각 말고 인물풍채 마땅하면 시집보내달라고 재촉하고 있다. 그리고 사십 년 무정세월의 한을 시집가서 풀려고 했더니 우리 부모 무정하여 전혀 생각이 없다고 원망했다. 할아버지가 호조판서이고 부친이 병조판서를 지낸 문벌이면 사족가문에서 혼처를 찾는 것이 이상할 게 없음

에도 불구하고 노처녀 화자에게는 늙도록 딸을 내버려 두는 부모가 무정하게 생각될 따름이다. 그리고 병조판서의 딸이고 절세미인인 화자가 김동이 이동이, 초혼·재혼 가리지 않는 모습은 어색해 보인다. 그럴 정도로 다급하고 초조해진 화자의 모습에 대한 비유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노처녀가1>은 작품 전체에 걸쳐서 부모에 대한 원망의 반복으로 되어 있다. 그 반복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점층적 반복으로서 단락③에 이르면 신분 가릴 것 없이 번듯한 사내면 혼인시켜 달라고 졸라대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모에 대한 원망의 말은 지나치게 격앙되어 있고 부모는 과도하게 비하되어 있다. 이것은 화자의 대상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지 대상의 문제는 아니다. 물론 딸을 노처녀로 만든 것이 부모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작품상에서는 딸에게 극단적인 비난을 받아야 할 어떤 행동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팔자 좋은 처녀, 자손 보는 앞집 아모아기, 시집가는 동편집 용골녀도 대립해야 할 부정적 인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화자는 그들로 인해서 탄식이 더 깊어졌다. 그 이유는 <노처녀가1>이 서정적 작품이기 때문이다. 대상의 실제 모습과 관계없이 화자의 의식과 정서에 의하여 대상이 비쳐지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에 대하여 원망하고 비하하는 표현은 너무 과도하다. 이러한 과도한 표현은 부모를 희화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화자 자신을 희화화하는 결과가 됐다고 할 수 있다.<sup>21)</sup>

21) 최규수는 앞의 글, pp.408-410에서 희화화의 대상을 부모라고 보았고 양태순은 앞의 글, pp.211-212에서 부모에 대한 약간 지나치게 과장은 했다지만 그렇다고 웃음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희화화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 노처녀의 한탄이 원망으로까지 치달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반면, 박일용은 앞의 글, 106쪽에서 부모를 희화화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현실적 기준에서 보면, 부모의 희화화는 결국 화자 자신의 희화화로 귀결된다고 했다. 이글에서는 박일용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부모에 대한 희화화는 간접적인 자기 희화화라고 보고, 작품에 표현된 화자의 모습이나 행동은 직접적인 자기 희화화라고 본다.

따라서 <노처녀가1>은 부모나 다른 대상을 비판하고자 하는 풍자로 읽히기보다는 오히려 노처녀라는 현실에 못 견디는 화자, 혼인 외에는 아무 것도 보이는 게 없는 화자에 대한 해학으로 읽히고 그런 노처녀 화자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한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의 경우, 글로 써 놓은 것을 보면 부모에 대한 표현으로는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처녀의 마음속에서는 그보다 더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리고 혼인한 젊은 여성은 눈꼴시어 못 보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 개연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노처녀가1>이 당대에 성행하게 되었을 것이다. 가부장적 권위가 강화되던 조선후기에 있어서 노처녀야말로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된 약자로서 당시 여성들의 보편적 삶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처지였는데 그런 노처녀가 자신의 정서를 마음껏 털어놓았기 때문에 여성들의 광범위한 공감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sup>22)</sup>

22) 성무경은 앞의 글에서 “이 표현들은 ‘노처녀의 용심과 회증이 오죽했으면 저런 말, 저런 행동을 했을까?’하는 연민과 동정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회화적 과장이지, ‘이념적 진보성’이나 ‘사회문제를 반영하는 작가 의식’을 전달하려는 ‘진정성이 요구되는 작품’은 아니라는 것이다. <…> <노처녀가1>은 이 작품이 놓이는 문화적 위상, 즉 잡기문화권 시대에 가장텍스트로 불린 문화담론마저 개입시키고 보면, 잡기문화가 추구한 흥미 일변도의 유희텍스트에서 삶의 진정성을 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고 했다.(앞의 글, p.182) <노처녀가1>의 표현은 회화적 과장이지 이념적 진보성이나 사회문제를 반영하는 작가 의식은 아니라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유희적인 가창 문화권에서 향유된 흥미 위주의 유희텍스트인 <노처녀가1>에서 삶의 진정성을 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잡가가 유희적인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의 대중문화로 널리 향유되었고 노랫말을 기록한 잡가집이 대거 출판되었던 것은 당시인들의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노처녀가1>이 규방가사로도 불렸고 서사적 성격을 띤 <노처녀가>류의 문학작품이 다양하게 등장한 것도 그런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진정성이 없는 작품이 대중들에게 광범위하게 향유될 수는 없다고 본다.

<노처녀가1>은 결말에서, 혼인을 통해서 본성적 욕망을 성취하고 보편적 삶을 동경하다 좌절당한 마음을 “아마도 모진목숨 죽지못해 원수로다”라고 했다. 막다른 골목에서 터져 나온 외마디 비명처럼 들린다. 부모 슬하에서 성장해서 혼인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평범한 여성들의 보편적인 삶에 대한 동경과 그 좌절에서 오는 불안정서의 강도를 느낄 수 있다. ‘앞집에는 신랑 오고 뒷집에는 신부 가는’ 장면은 일반인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지만 화자에게는 매우 특별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노처녀가1> 외에 다른 <노처녀가>들은 대부분 이런 좌절을 딛고 혼인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노처녀의 모습을 그렸다. <노처녀가2>는 서사적 전개를 보이는 작품이다. <노처녀가1>처럼 부모에 대한 원망<sup>23)</sup>도 있지만 자기 회화화가 확대되어 있다. 자기 자신을 “병신”이라고 하면서 가지가지 못한 점들을 나열했다. 그렇지만 인간으로서, 여자로서 있을 것 다 있고 할 것은 다 할 줄 안다고 했다. 여러 가지 나열된 것들을 보면 남들보다 잘 나고 잘 한다고 할 것이 전혀 없으면서 특별히 잘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에서 자기 회화화의 파노라마를 볼 수 있다.<sup>24)</sup> “이만하면 됐지, 내가 어때서?”라고 항변하는 목소리이다. 그런데 이런 회화화

23) 김동욱 편, 앞의 책, p.24. “밥이 업서 설위힐가 옷시 업서 설위힐가 / 이 셔름을 어이 풀니 / 부모님도 야속하고 친척도 무정하다 / 니 본시 돌지 쏘로 쓸 디 업다 허려니와 / 니 나홀 헤여 보니 오십줄의 드리고나 / 먼저는 우리 형님 십구세의 시집가고 / 셋지의 아오년은 이십의 서방마즈 티평으로 지닌디 / 불상한 이 니 몸은 엇지 그리 이러호고”

24) 위의 책, pp.24-25. “니 비록 병신이나 남과 갖치 못홀소냐 / 니 얼굴 엷다 마쇼 엷은 굵게 슬기 들고 / 니 얼굴 검다 마쇼 분칠하면 아니 힐가 / 혼 편 눈이 머러시나 혼 편 눈은 밝아잇네 / 바늘귀를 능히 꿰니 보선불을 못 바드며 / <...> / 중인이 모힌 곳의 방귀귀 썬여 본 일 업고 / 밥जू격 업혀 노아 니를 죽여 본 일 업니 / 장독소리 벽겨 니여 뒤물그릇 한 일 업고 / <...> / 슈슈전병 부칠 제는 외쪽지를 닛지 말며 / 상치삼을 먹을 제는 고초장이 제일이오 / 청디콩을 삼지 말고 모닥불의 구어 먹쇼 / 니 얼굴 이만호고 니 형실 이만호면 무슨 일의 막힐손가”

장면 바로 다음에는 “니 모양 볼작시면 어룬인지 으히런지 / 바름마즌 병인인지 광직인지 취직인지 / 여럽기도 그지 업고 붓그럽기 증양업니”라고 각성하는 대목이 이어진다. 이러한 회화화와 직설법의 교차는 화자의 혼란스런 정서를 실감나게 전달해 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노처녀가2>는 노처녀 화자의 탄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위한 노력으로 시상의 전환을 가져온다.<sup>25)</sup> 형님과 아우가 혼인할 때를 생각하면서 미치도록 화증을 드러내고 답답해 하다가, 문득 부모동생 믿고 있다가는 서방맛이가 망연할 것 같다며 ‘내 서방 내가 고르겠다’고 결단을 내린다. 결단을 내리고 첫 번째로 실행한 것이 쇠침으로 점치기였다. 점치기 결과 김도령을 신랑감으로 정하고 평생소원 이룬 듯 어깨춤을 추지만 하룻밤 꿈속 혼인으로 끝난다. 두 번째로는 남이 볼까 부끄러워 은밀히 흉두께를 치장하여 신랑삼아 혼례 올리는 장면을 연출한다. 노처녀가 느끼는 외로움의 극치이고 자기 회화화의 절정이다.<sup>26)</sup> 이런 정황을 본 부모 동생들이 의논하여 마침내 김도령과 혼인해서 평생소원을 풀었을 뿐만 아니라 부부 금슬 좋고 자손이 만당하며 가산이 부요하고 공명이 이어졌다고 했다. 작품 서두에서 “병신”이라고 했던 자기 몸이 정상으로 돌아와 “먹은 귀 발가지고 병신 팔을 능히 쓰니 / 이 아니 희한헌가”라고 감탄했다. 따라서 이것은 실제로 자기 몸이 병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화자가 처해 있었던 불구적 상황의 비유<sup>27)</sup>라고 할 수 있다. 불구적 상황의 해소는 행복한

25) 위의 책, pp.26-27에 걸쳐서 두 가지 사건에 대하여 길게 서술하였다. “디체로 singlar면 니가 결단 못홀손가 / <…> / 막음을 강잉하여 가마니 혀여 보니 / 가련하고 불상헌다”

26) 박상영, 앞의 글, p.428에서, 이 대목은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 기존의 지배질서가 강하게 반영된 중세의 시선을 차츰 극복해 가며 새로운 시선의 일면을 보여준 현상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다. 여기서는 견해를 달리하여 자기 회화화로 보았다.

27) 최원식, 앞의 글, pp.244-245 참조.

결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외에 <노처자전이라>는 노처녀의 탄식 부분은 <노처녀가1>의 이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데 혼인한 후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후반부가 첨가되어 있다.<sup>28)</sup> <꼭둑각시전><sup>29)</sup>은 소설인데 성이 ‘꼭’이고 이름이 ‘뚝각시’인 노처녀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홀로 살아가다 나이 서른이 되어 가난한 ‘골생원’ 집 아들과 혼인해서 집안 일으키고 나이 구십구세가 되도록 해로했다는 이야기다. 전체적으로 해학적인 작품인데 노처녀 시절보다 홀로 시집을 찾아가는 과정, 병신 남편 만나 섬기며 시부모 잘 모셔서 집안을 번창시키는 과정에 무게 중심이 놓여 있다.<sup>30)</sup> <노처자수절가><sup>31)</sup>는 지극 정성으로 키워 주신 부모를 불의에 잃고 고초를 당하며 나이 든 처녀가 좋은 남편 만나 아이 낳고 조상봉사 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짧게 요약 서술한 작품이다. 아마 작가가 당시에 여러 장르로 성행하는 <노처녀가>를 접하고 교훈적 의미를 가미하여 이 작품을 쓰지 않았나 추측된다.

이들 작품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의 평가는 <노처녀가1>에 비해서 혼인

28) <노처녀가1>과 <노처자전이라>의 관계에 대해서는 박일용, 앞의 글 참조.

29) 하성래 교역, <꼭둑각시전>, 『문학사상』 5월호, 문학사상사, 1980, pp.428-436.

30) <노처녀가>의 서사화 논의에서 <노처녀가2>와 <꼭둑각시전>의 관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 글은 <노처녀가>의 공시적 존재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서사화 과정이나 작품 간 관련성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이들 작품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는 강경호, 『19세기 가사의 향유 관습과 이본 생성』, 『반교어문연구』 제18집, 반교어문학회, 2005, pp.43-81, 참조.

31) 임기중,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5, 아세아문화사, 2005, pp.65-67. <노처자수절가>는 朴奉赫(1873~1935)이 쓴 12편의 가사 작품을 실어 놓은 가사집 『永言傳』에 실려 있다. 이 가사집에 실려 있는 작품은 유교이념의 실천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교훈가사들이다. 따라서 <노처자수절가>는 남성의 입장에서 교훈을 목적으로 쓴 작품으로서 다른 <노처녀가>와는 이질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노처자수절가>에 대해서는 최규수, 『『영언전』 소재 가사의 특징적 양상과 해석적 맥락』, 『어문연구』 제39권 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pp.197-221, 참조.

이후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여타 <노처녀가>는 효 이데올로기에 대한 부정 내지 반발의 후퇴<sup>32)</sup>이고 현실인식의 약화<sup>33)</sup>라고 보거나 스스로의 자각에 의해 기존의 지배질서가 강하게 반영된 중세의 시선을 차츰 극복해 가며 새로운 시선의 일면을 보여준 현상<sup>34)</sup>으로 보는 등 상반된 주장을 보여주고 있다. 어느 주장이든 조선후기 문학의 현실비판을 통한 근대 지향성에 견주어 작품을 바라봤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먼저 작품 문맥과 작품의 존재양상을 통해서 그 주제를 도출해 보고자 했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노처녀가1>이 본성적 욕망이 좌절됨으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는 노처녀의 탄식을 통해서 독자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면, <노처녀가2> 등 여타 작품들은 가정을 이루어 부부금을 좋고 자녀번창하기를 바라는 당시 여성들의 보편적 삶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 준 것으로 보았다. 노처녀가 혼인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중세 조선에서 현달한 사대부 가문이다. 예를 들면, <노처녀가2>에서는 ‘부부금을 좋고 자손만 당하며 가산부요하고 공명이 이음찬’ 가문, <꼭독각시전>에서는 ‘현덕부인은 부모효도 남편공경 하고 자손은 번창하고 현달한’ 가문이다. 이들 가문은 당시 사람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가정이었고 보편적인 삶의 전형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 작품에서 현실비판적이고 근대 지향적인 의식을 찾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꼭독각시전> 역시 이본이 10여 종 되는데 주제 상으로 볼 때는 매우 보수적인 작품이다.<sup>35)</sup>

다만, <노처녀가>의 경우 18세기말 시조, 가사, 소설, 희곡 등 4대 장르에 걸쳐 두루 실현되었고,<sup>36)</sup> 이들 작품들은 앞 시대까지는 볼 수 없었던

32) 최규수, 앞의 글, p.423, 참조.

33) 박일용, 앞의 글, p.108, 참조.

34) 박상영, 앞의 글, p.428, 참조.

35) <꼭독각시전>의 결말은 귀족적 영웅소설의 결말과 유사하다.

여성 문학의 성행, 과감한 표현들, 다양한 신분의 등장인물, 대중적 가창문화의 성행 등 문학사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Ⅲ. 보편적 삶의 이념적 속박과 일탈, 〈여자자탄가〉

앞서 언급했듯이, 규방가사는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녀가, 화전가, 탄식가로 분류하여 논의해 왔다. 세 유형의 규방가사는 당시 규방 여성들의 세 가지 의식지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여성문학의 양상이나 문학사의 변화를 가늠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탄식가인 〈여자자탄가〉를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계녀가·화전가와와 관련된 속에서 작품의 의식지향을 밝혀 보고자 한다. 또한, 앞서 논의한 〈노처녀가〉는 잡가나 소설로도 향유되었지만 규방에서 자탄가로도 불렸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노처녀가〉와 〈여자자탄가〉는 ‘자탄’, 또는 ‘탄식’의 문학이라는 점에서는 동질적이지만 매우 다른 상황, 매우 이질적인 화자를 지닌 작품이기 때문에 당시 여성들의 의식지향을 다채롭게 구명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이다.

본성적인 욕망이 좌절당함으로 인해 보편적 삶을 성취하지 못한 怨憤을 토로한 것이 〈노처녀가〉라 한다면, 노처녀가 이루지 못한 욕망과 보편적 삶을 성취한 여성의 원분을 토로한 것이 〈여자자탄가〉이다. 노처녀의 입장에서 볼 때, 〈여자자탄가〉 화자의 원분은 호사스러운 것일 수 있다. 그렇지만 〈여자자탄가〉에 나타나 있는 화자의 정서도 〈노처녀가〉의 화자

36) 성무경, 앞의 글, p.181, 참조.

못지않게 절실하다. 먼저, 작품의 서두와 결말을 살펴보자.

오홉다 여자들아 이내말삼 드어봐라 / 제류부디 천타마라 만물중의 귀하니  
라 / 남자로 못디이고 여행뉘이 급분하다 / 부모혈륙 타고나서 사람마다 섭섭  
하다

원수로다 구뵈이 원수로다 / 녹음방초 조흔곳이 피꼬리 노래하니 / 처량흔  
마음으로 자탄가 지엇노니 무심하게 보지마옵시사 / 계사년 십일월 십육일

규방가사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서두와 결말 구조이다. 동류 여성들에  
게 말하는 형식의 서두는 화자가 자신의 말에 공감해 주는 상대를 끌어들  
이는 어법이다. 남자가 못 되고 여자 된 것이 極憤하다고 했으니 남자들은  
빼고 여자들끼리 여자로서의 분함을, 남자들을 향한 분노를 풀어놓겠다는  
의미이다. 결말에서 “구뵈이 원수로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남성 중심 사  
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 화자의 외침이다. <노처녀가> 서두에서 금수  
초목보다 못한 화자의 처지를 탄식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노처녀가>는  
타고난 본성적 욕망을, <여자자탄가>는 혼인한 여성들의 보편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다.

서두와 결말에서 토로한 화자의 극분함이 본사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된  
다. 서두에 이어서 본사에서도 ‘극분’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쓰여서 작품  
전체에 흐르고 있는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본사의 내용 전개를 대강 요약  
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여자의 도리 배우며 성장함
- ② 동류들과의 춘삼월 꽃놀이 흥취
- ③ 혼인 논의와 절대가약, 그리고 부끄러운 첫날밤

- ④ 시집가야 하는 극분함
- ⑤ 친정 엄마의 시대 생활에 대한 당부
- ⑥ 신행과 부모동생·동류들과의 이별
- ⑦ 시대의 후덕한 입심, 그러나 힘든 시집살이
- ⑧ 고향에 대한 그리움
- ⑨ 반가운 친정 오빠의 방문과 친정 엄마의 당부 서찰
- ⑩ 남의 집 지차 시집살이의 극분함
- ⑪ 권문가 여성으로서의 질제
- ⑫ 일평생 회고와 극분하고 통분함
- ⑬ 근심걱정 떨치고 늙, 그렇지만 착잡한 정서

요약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에는 다양한 정서가 섞여 있다. 단락①②는 혼인 전의 정황을 담담한 목소리로 제시하고, 단락③은 혼인 직후 첫날밤의 부끄럽고 설레는 마음을 노래했다. 그러다가 단락④에서 시대에 갈 생각을 하니 극분하다고 했다. 단락⑤에서는 신행 갈 때 친정 엄마가 시집가서 할 일에 대해 당부한 내용을 열거했다. 화자의 정서 상태로 볼 때, 단락③에서 단락④, 단락④에서 단락⑤로의 연결이 어색하다. 극분한 사연에 대한 서술이 전혀 없이 “이들이들 우리우리 여자행지 극분하다”라고 탄식하면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갔다. 단락⑩과 단락⑫ 역시 단락④와 마찬가지로 친정 생각을 하면서 극분한 정서를 토로한 대목이라는 점에서 친정을 떠나 시집살이를 해야 하는 여자의 정서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요소요소에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처럼 보인다. 격한 탄식과 함께 “권문가의 교육바든” 사람으로서 극분하고 통분한 정서를 누그러뜨리고 친정 엄마의 당부를 떠올리기도 하고 청자에게 “추후라도 원망말고 일 시도 불행마라”라고 당부하면서 품격을 유지하려는 의식도 있었다. 이런 상반된 정서의 표현 과정을 좀더 세부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가)

① 시택문전 들어가니 인물도 처음이라 / 잔채의 모인손님 이분아나 / 저분  
아나 면면이 살펴보니 순우하고 유덕하다 / 조석사관 현신하니 자비하신 마음  
이요 / <…> / ② 지골로 성장하여 천역을 잊지하라 / 삼복지간 더운째이 안니  
의 땀이속고 / 엄동설흔 친운째이 옥수가 다터진다 / ③ 물 결갠 새월이라  
습자식이 번게갠다 / 바람불고 비올때나 눈이오나 달발근디 / 축희의 안즈노니  
고향싱각 간절하다 / 부모말 듯든흔게 귀이쟁쟁 못이즐다 / 동기의 그런안면  
눈이삼삼 보고저라 / 부모동기 소식몰라 날마다 보고싶고 / 밤마다 그리워라

(나)

① 초로갠든 인싱들아 나이말슴 드러보소 / 백년을 산다히도 병든날과 잠든  
시로 / 역역히 다제하면 습습해 못디나니 / 오흠다 우리여자 후싱의 남자로다  
/ 혼흔새이 닷시불고 우습고도 혼심하다 / 십싱구살 흘지래도 남여병화 잊지디  
라 / 근심걱정 얼마히리 해소담락 잊지히리 / ② 초로갠든 인싱들아 나기망망  
노라보자 / 험한일 너무말고 근심걱정 너무마요 / 즐사라도 북망이요 못사라도  
북망이요 / 귀하다고 서름마요 준비귀천 흥망성쇠 / 몰래갠치 즐도돈다 / ③  
여보시오 여자들아 / 잊이마시 잊이마시 부모인공 잊지마시 / 비와보자 배와보  
자 착흔행실 비와보자 / 듯지마시 듯지마시 악흔말을 듯지마시 / 노지마세  
노지마세 우리인싱 노지마시

(가) 대목의 경우, ①에서 시대 분들에 대한 칭송이 이어지다가 ②에서  
갑자기 매서운 시집생활로 전환되더니 ③에서는 물결같이 지나간 세월에  
대한 탄식과 친정에 대한 그리움으로 바뀌었다. ①에서 ②로의 전환이 느  
닷없이 이루어졌고, ②에서 ③으로의 전환도 연결성이 없다. (나) 대목의  
경우, ①에서는 초로 같은 인생에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여자로서의 탄식  
을 토로하고 ②에서는 근심걱정 말고 놀아보자고 권하더니 ③에서는 갑자  
기 부모 은공 잊지 말라, 놀지 말고 배워보자고 했다. ②는 ①에 대한 일탈  
이라 하더라도 ②에서 ③으로의 연결이 갑작스럽다. 시상 전개에 있어서

이러한 부자연스러움은 화자의 정돈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정서 상태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실에 대한 불만 때문에 탄식하지만 탄식으로만 치닫지 않는 화자의 의식적 제어장치가 있었던 것이다.<sup>37)</sup>

<여자자탄가> 화자의 이러한 의식세계는 중층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일상이 된 보편적 삶의 이념적 속박에서의 일탈과 또 다른 자유로움의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해석하고, 다음으로는 작품의 사회적·문화학적 의의를 부여하는 것이다. 후자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자를 중심으로 논의해 본다.

<노처녀가1>의 화자는 “남녀자손 시집장가 몇몇한 일”, 즉 혼인하고자 하는 본성적 욕망을 좌절당함으로써 여성들의 보편적 삶까지도 이루지 못한 현실을 탄식했다고 한다면, <여자자탄가>의 화자는 여성으로서의 보편적 삶에 대한 불만을 탄식한 작품이다. 보편적 삶에 대한 불만은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 시집살이의 고통, 시집에 살면서 친정을 그리워해야 하는 것 등이다. 바꾸어 말하면, 남자와 같은 삶, 시집살이 없는 친정에서의 삶에 대한 선망이다. 따라서 <여자자탄가>의 화자가 바라는 삶은 이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다. <여자자탄가>의 화자에게 남자들의 삶은 아무 통제가 없는 자유로운 삶으로 비치고<sup>38)</sup> 친정 혈육들과의 삶은 그 자체가 행복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렇지만 단락별 내용 전개에서 살펴봤듯이, 화자는 끊임없이 보편적 삶의 이념적 사고와 극분 정서 사이를 오가고 있다. 극분 정서로써 삶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자 자신이 처한 사회적 위치에서 보편적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

37) 백순철과 신경숙의 앞의 논문 참조. 각주 15), 각주 16)에서 인용한 백순철과 신경숙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분열의식과 혼돈성에 대한 해석은 달리 해 보고자 한다.

38) 비슷한 제목의 <여자탄식가>에는 부귀공명을 누리고 자유분방한 남자들의 좋은 팔자에 대한 부러움이 강화되어 있다.

다. 그런 면에서 <여자자탄가>의 화자는 현실, 즉 보편적 삶의 불만에서 오는 극분의 정서 표현으로 일탈을 감행했다고 할 수 있다. <노처녀가1>의 화자가 시집은 팔자 좋아서 가는 것이라 여기고, 혼인해서 앞집 뒷집 신랑 신부 오고가는 소리만 들어도 부러워한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노처녀에게는 부부가, 혼인한 여성에게는 남자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노처녀는 혼인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고, 혼인한 여성은 남자가 되어 바깥세상을 살아간다면 아무 제약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여자자탄가>에 나타난 이러한 일탈을 당시 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근대의식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점은 규방가사의 세 유형, 즉 계녀가·화전가·자탄가의 상호 역학관계를 통해서도 설명해 볼 수 있다.<sup>39)</sup> 세 유형의 작품들은 매우 이질적이면서도 서로 맞물려 있다. 계녀가는 친정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며느리로서의 보편적인 삶을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계녀가의 작가는 시집가는 딸에게는 친정엄마이지만 또 다른 여성에게는 시어머니이기도 하고 며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녀가의 작가일 뿐만 아니라 화전가와 자탄가의 작가일 수도 있다. 따라서 친정엄마는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을 했고 여성의 삶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집가는 딸에게는 계녀가를 통해서 우선 여성으로서의 보편적인 삶인 시집살이를 가장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지혜와 함께 친정엄마의 정을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친정엄마의 목소리로 되어 있지만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쓴 것이 계녀가이다.

39) 최상은, 「규방가사의 유형과 여성적 삶의 형상」, 『새국어교육』 91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12, pp.351-380, 참조.

계녀기는 친정엄마의 목소리로 들려준 보편적인 삶의 이념적 지침이었지만, 화전가와 자탄가는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화전가는 모처럼 맞이하는 여자들만의 놀이인 화전놀이를 준비하고, 즐기고, 돌아오는 과정을 노래한 작품들로서 시집의 울타리, 여성의 일상을 벗어나서 노는 재미를 노래하였다. 그 과정에서 여성으로서의 한이 나타나 있지만, 그 한은 오히려 여성들의 흥을 돋우어 준다. 이것이 일탈의 즐거움이다. 그 즐거움은 저녁 무렵 놀이를 끝내야 하는 섭섭함으로 마무리되지만 내년을 기약하면서 가정으로 복귀한다. 돌아갈 집, 복귀해야 할 일상이 있다는 전제에서 놀이가 즐거울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하루 동안의 일탈에서 오는 기분풀이가 화전놀이이고, 화전가 창작이었다. 일탈이라는 의미에서 자탄가는 화전가와 동질적인 면이 있다. 그렇지만, 화전가는 흥으로써 기분풀이를 했지만, 자탄가는 분풀이를 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 분풀이 역시 여성으로서의 보편적 삶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제하고 품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화전가와 자탄가는 규방 여성들의 일탈을 통한 감정정화의 두 방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화전가와 자탄가는 보편적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원심력이었다면, 계녀가는 보편적 삶을 유지하게 해 주는 이념적 구심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40)</sup>

문학작품은 갈등과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품화자가 갈등과 대립에 휩싸여 있다고 해서 작가의 삶 전체가 그랬던 것은 아니다. 문학작품은 삶

40)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이념적 구심력과 일탈의 원심력은 순차적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자탄가를 부르던 당시의 자탄 요인이 사라지면, 다음 시대에는 또 다른 자탄의 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어떤 여성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되었을 양반가 노치녀는 <노치녀가>로써 노치녀임을 탄식했고, 노치녀가 동경했던 혼인 여성은 자탄가로써 여성임을 탄식했다. 자탄가의 화자가 탄식했던 불만이 해소된 다음 시대의 여성들은 불만이 없었고, 그 불만에서 창작된 문학이 현재까지 없었던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대를 막론하고, 타고난 본성적 욕망을 없앨 수 없듯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삶을 유지해 줄 이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자자탄가> 역시 당시 여성들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에서 속박당하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한 가족을 이끌어 가는 안주인의 위상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원망의 대상인 남편도 있지만 “이 방 저 방 해도 서방이 최고다”의 남편도 있는 것이다. 그런 다면적인 모습들의 한 단면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계녀가, 화전가, 자탄가이다.

다만, 18, 19세기 이후 중세의 성리학, 가부장적 가족제도, 신분사회의 이념이 붕괴되어 가면서 생긴 사회적 변화는 규방문화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기존의 이념을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보수 성향이, 다른 한편에서는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와중에서 가정의 울타리에 숨어있던 여성들의 규방가사가 대거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규방가사의 작가들은 대체로 가문 유지를 하고자 하는 보수적 이념을 지니고 있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이념에서 일탈하고자 하는 욕구를 발산하고 다양한 장르의 문학을 수용하여 왕성한 창작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문학사의 흐름에 동참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노처녀가>나 <여자자탄가>의 일탈의식에서 근대의식을 찾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sup>41)</sup>

---

41) 연구자들 중에는 자탄, 화전가류에서 드러나는 아내인 여자로서의 발화는 인간의 종속 논리를 거부하고 사회의 모순을 인식했던 근대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나정순, 『규방가사의 문학과 여성 인식』, 『한국 고전시가 문학의 분석과 탐색』, 역락, 2000, p.276, 참조.

#### IV. 마무리

이 글에서는 <노처녀가>와 <여자자탄가>를 중심으로 18세기 이후 많은 창작이 이루어진 규방가사 등 여성가사에 나타난 여성 정서로서의 ‘욕망’과 ‘탄식’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노처녀가>와 <여자자탄가>는 작품화자가 혼인하지 못한 노처녀와 혼인한 부인이라는 점에서 상반되지만, 두 작품 공히 타고난 본성적 욕망과 보편적 삶의 이념성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탄식이라는 점에서는 동질적 성격의 작품임을 밝혔다. <노처녀가1>은 타고난 본성적 욕망인 혼인이 좌절된 원망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을 노래했다. 그런데 <노처녀가2>와 여타 <노처녀가>들은 그런 원망과 함께 혼인 후 당시 여성들이 이루고자 했던 보편적 삶을 성취해 가는 과정까지 내용이 확장되어 있다. <노처녀가1>은 응어리진 속마음을 털어놓고 동료들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정서를 순화하고, <노처녀가2>는 서사적 전개를 통해 가정을 이루려는 노처녀의 꿈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까지를 실감나게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처녀가1>과는 달리 <여자자탄가>는 혼인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 보편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의 원분을 토로한 작품이다. 노처녀의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자자탄가>의 화자 역시 노처녀 못지않게 한숨 깊은 탄식 소리를 내고 있다. <여자자탄가>의 화자를 힘들게 한 것은 <노처녀가1>의 화자가 동경하는 당시 여성들의 보편적 삶이다. 혼인 못한 노처녀가 동경했던 보편적 삶이 혼인한 여성에게는 삶의 구속이 된 것이다. 동경의 대상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 현실은 또 다른 속박이 되고, 사람은 다시 그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고 새로운 세계를 동경하게 된다. 그렇지만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보편적

삶이 구속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 삶 속에서 향유하는 행복이 있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자자탄가>에서 극분하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현실을 돌아보며 자신을 추스르는 화자의 모습은 당시 여성의 이러한 복잡한 의식세계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여성들의 복잡한 의식세계는 계녀가, 화전가, 자탄가 등 다양한 유형의 규방가사를 통해서 그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계녀가류가 보편적인 삶의 이념적 지침을 제시해 준 작품군이라 한다면, 화전가와 자탄가는 거기에서 일탈하고 싶은 정서를 드러낸 작품군이다. 말하자면, 화전가와 자탄가는 일상의 보편적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원심력이었다면, 계녀가는 보편적 삶을 유지하게 해 주는 이념적 구심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단, 이들 작품이 당시의 다양한 문학 장르로 향유되고, 앞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여성 문학의 성행, 과감한 표현들, 등장인물의 다양화 등 문학사적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그 의의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작품에서 근대의식을 찾기는 무리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김동욱 편, 『고소설관각본전집1』,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73, pp.24-27.
- 임기중, 『한국가사문학주해연구』 12, 아세아문화사, 2005.
- 정문연, 『규방가사』 I, 정문연 고전자료편찬실, 1979, pp.125-127.
- 고순희, 「〈노처녀가〉 연구」, 『한국시가연구』 제14집, 한국시가학회, 2003, p.186.
- 김문기, 『서민가사연구』, 형설출판사, 1983, p.88.
- 김용찬, 『『삼설기』 소재 〈노처녀가〉의 내용 및 구조에 대한 검토』, 정재호 편,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6, pp.419-420.
- 나정순, 「규방가사의 문학성과 여성 인식」, 『한국 고전시가 문학의 분석과 탐색』, 역락, 2000, p.276.
- 박상영, 「〈노처녀가〉 이보의 담론 특성과 그 원인으로서의 ‘시선’」, 『한민족어문학』 제73집, 한민족어문학회, 2016, pp.426-427.
- 박일용, 「〈노처녀가(1)〉의 담론 형태와 그 시학적 의미」, 김병국 외편,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 월인, 2006, p.78.
- 백순철,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사회적 성격」,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0, pp.71-74.
- 서인석, 「가사와 소설의 갈래교섭에 대한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5, p.66.
- 성무경, 「‘노처녀’ 담론의 형성과 문학양식들의 반향」, 『한국시가연구』 제15집, 한국시가학회, 2004, p.182.
- 신경숙, 「규방가사, 그 탄식 시편을 읽는 방법」, 『국제어문』 제25집, 국제어문학회, 2002, p.91.
- 양태순, 「규방가사 여성성으로서의 ‘한탄’에 대하여」, 김병국 외 편,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 월인, 2006, pp.163-221.
- 이재수, 「여자자탄가 연구」, 『동양문화연구』 제2집, 경북대 동양문화연구소, 1975, pp.17-62.
- 최규수, 「〈여자자탄가〉의 자료적 실상과 특징적 면모」, 『어문연구』 제43권, 어문연구학회, 2015, pp.286-287.
- 최규수, 「『영언전』 소재 가사의 특징적 양상과 해석적 맥락」, 『어문연구』 제39권 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pp.197-221.
- 최규수, 「〈삼설기본 노처녀가〉의 갈등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5

- 집, 한국시가학회, 1999, p.421.
- 최상은, 『구방가사의 유형과 여성적 삶의 형상』, 『새국어교육』 91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12, pp.351-380.
- 최원식, 『가사의 소설화 경향과 봉건주의의 해체』, 『창작과 비평』 통권 46호, 창작과 비평사, 1977 겨울, pp.231-255.
- 최진형, 『‘가사의 소설화’ 재론』, 『성균어문연구』,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1997, pp.213-244.
- 하운섭, 『시적 체험의 다양성과 <노처녀가(1)>』, 『국어문학』 제44집, 국어문학회, 2008, p.299.

**Abstract**

Two desires and sighs of women in the lat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Nocheonyeoga> and <Yeojajatanga> –

Choi, Sang-eun

In this paper, I have tried to discuss the meaning of sigh as a female emotion in women's Gasa since the 18th century.

<Nocheonyeoga> and <Yeojajatanga> are opposite to each other as the narrator is an old maid and a married woman. However, both the works are homogeneous in that they are the sigh that comes from the gap between their natural desires and universal life ideologies. <Nocheonyeoga> sang is a sigh that came out of frustrated resentment of marriage that was her natural desire.

<Yeojajatanga> is a work that speaks out the resentment of a woman who is married and living in a universal life. At that time, it was the universal life of women that made the narrator of <Yeojajatanga> difficult. The universal life that an old maid longed for was a restraint of life for a married woman. When the object of longing becomes reality, the reality becomes another restriction, and a person desires to deviate from the reality again and becomes a longing for a new world.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Nocheonyeoga> and <Yeojajatanga> are the sigh of the conflicts between the natural desire and the universal life, and the reality and the world of longing. Thus, the two works clearly demonstrate the two aspects of the conflict that were extremely grave for women at that time.

Key Word: <Nocheonyeoga>, <Yeojajatanga>, desire, sigh, universal life, ideology, resentment, restrain, deviation.

최상은

소속 :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 교수

전자우편 : sechoi@smu.ac.kr

이 논문은 2018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8년 12월 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12월 10일 게재 확정됨.